

심사위원과 함께 읽는 유망작가 있는 출판사입니다!  
 '나눔'을 통해 '읽는' '쓰는' '소통'을 전합니다  
 (054) 655-1011, 011-336-4665  
 대한불교조계종 권역교협 소속 출판사

# 현대불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 포럼으로 내일을 준비한다

### 토론 통한 불자 위상 정립 · 사회참여 확대 모색에 '이목집중'

2004년 봄, 세가지 포럼을 통한 재가불자들의 결집이 시도된다.

'불교문화포럼(가칭)', '중신포럼(가칭)', '새 시대를 여는 화엄포럼 위원회'는 불교문화, 신도운동, 사회현안을 주제로 각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불자들을 한데 모아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이들 포럼이 주목받는 이유는 포럼의 주제가 미래사회에서 불교의 새로운 위상정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포럼은 그간 불교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소극성, 사회참여 미비, 불명확한 정체성을 불자 스스로 적극 타개해,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다.

또 불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적극적인 연대는 이들 인적 자원이 갖고 있는 무형의 자산을 극대화하는 기반도 될 수 있다.

특히 포럼이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도록 포럼에서 마련된 각 사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안은 정책에도 반영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어 향후 활동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불교문화포럼'은 불교문화가 21

세기 문화의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중 · 장기적인 불교문화산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모임이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주축이 되고 종단의 관련 실무자들과 불교계 각 분야 문화담당자들이 참여하는 '불교문화포럼'은 6월부터 매월 1

가 될 것'이라며 '포럼이 구체화 · 장기화 되면 불교문화산업이 체계를 갖추고, 일반에 불교문화를 회향해 불교이미지를 제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발족시킨 '중신포럼'은 신도운동의 전망과

네트워크'도 정식 출범한다. 중앙신도회가 주도한 '불자사회네트워크'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도들 간에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대구 지역 대학교수,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등 40여명의 전문적 불자로 구성된 '새시대를 여는 화엄포럼 위원회(이하 화엄포럼)'도 3월 28일 창립했다. 이날 '화엄포럼'은 창립 선언문에서 "지역사회와 불교계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비판세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정치 · 행정집단의 연결고리를 담당하는 행위자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지역정서를 반영하는 불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불교가 지역사회와의 거리를 좁혀가는 시도로 평가된다.

'화엄포럼'은 불교뿐만 아니라 △도시 · 건설 · 환경 △문화 · 예술 · 관광 △교육 · 보건 · 복지 △지방분권 등 5개 분야별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포럼 과정을 거쳐 사회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불교인들이 마련해 나간다. 또 이를 공문화에 실현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오유진 · 김은경 · 배지선 기자

#### ■ 조계종 불교문화포럼

6월부터 월 1회 문화산업육성책 제시

■ 중앙신도회 '중신포럼' '불자사회네트워크' 신도활동 점검 · 유기적인 활동 연대 추구

#### ■ 대구지역 '화엄포럼'

지역정서 반영 통한 불교발전 견인

회 정기포럼을 열고 불교문화정책 아젠다를 선정해 불교문화정책의 큰 틀을 그려갈 계획이다.

문화부 박재현 과장은 "포럼은 불교문화에 대한 개념에서 문화장르별 구체화된 대안까지 다양한 불교 문화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는 자리

발전방향을 살피는 토론장으로, 신도운동은 불교의 위상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3월 29일 '중앙신도회 포럼구성 및 활동방안'을 주제로 첫 포럼을 개최했으며, 이후 매월 한차례 포럼을 열 계획이다. 이와 함께 4월 말경에는 '불자사회



일본에서 국내로 환수된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권24' 등 7책(사진 아래 왼쪽)과 이를 보관해 온 가족함(사진 아래 오른쪽). 사진제공= 문화일보

## 700년 만의 귀국

### 고려사경 '...화엄경' 국내 소장 확인

#### 국립문화재연구소 밝혀

일본 사찰에 소장돼있던 700여년 전 고려사경인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紺紙銀泥大方廣佛華嚴經, 감지은으로 필사한 화엄경)'이 국내로 환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올해 초 박모 씨가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이하 화엄경)'을 일본에서 구입해 소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3월 26일 밝혔다.

고려 충숙왕 때인 1336년 8월 경

주 기립사에서 제작된 이 화엄경은 일본 효고(兵庫)현 고베(神戸)시 오모로이(福祥寺)에 소장돼 왔다. 박모 씨가 현재 소장하고 있는 화엄경은 권28, 권29, 권38(이상 진본)과 권24, 권53, 권56, 권60(이상 주본) 등 모두 7책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박상국 예능민속연구실장은 "이 화엄경의 '권60 사성기(寫成記)'에는 중국에서 한역된 진본(眞本), 주본(周本), 정원본(貞元本) 등 3가지 번역본을 모두 필사했음이 기록돼 있다"며 "3가지 번역



본을 모두 사경하는 대 불사는 흔치 않은 일이며, 사경의 가치나 보존상황, 희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해 보물급 문화재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 선원장 초청 대법회

지환 스님  
'선수행의 요체'

4월 11일 오전 10시 조계사 대웅전

ARS 060-700-1080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 3월 26일 개통

현대불교신문사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벌이고 있는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는 불자들이 보다 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눔의 ARS (060-700-1080)를 3월 26일 개통했습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으로 일만전화와 휴대폰을 통해 060-700-1080을 누르면 3천원이 자동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됩니다.

ARS 060-700-1080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신청  
02)737-0090, 02)737-8881

### '우바이 파워' 전국 강타

박근혜 조계사서 참회의 108배  
추미애 국회정각회 · 연동회 활동  
강금실 불교학성회 출신, 사찰건립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추미애 민주당 의원, 강금실 법무장관. 이 세 사람은 최근 '우면파워'를 싣고 있는 정치인과 정부 각료다. 하지만 이들이 불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서로 걷는 길은 다르지만 이들은 '우바이 바람'의 당당한 주역들이다.

최초의 여성 법무부 수장에 오른 강금실 장관은 서울대총통불교학성회 출신의 독실한 불자. 변호사 시절 10여건의 불교관련 소송을 맡아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다. 범무법인 지평 대표로 있던 2001년에는 경기도 가평에 천관사라는 사찰을 건립해 서을 사당동 관음사에 기증하기도 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불자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정각회 회원으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민주당 연동회 회원을 맡고 있다. 최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희망 메시지'에 <잡보장경>의 구절을 인용해 화제를 모을 만큼 불자로서의 자긍심이 높

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65년 박순전 여사가 민주당 총재에 당선된 이후 39년 만에 여성 수장으로 세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불교와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인 박 정호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위패를 서을 도선사에 봉안, 매년 기제사를 올리고 있다. 당대표가 된 다음날인 3월 24일 조계사에서 참회의 108배를 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 '할'

풀어 놓고 가세요

백민 고민 저증, 슬프고 괴로운 일, 말입니다...  
그러하여 신나는 삶을 사세요

그림 · 조태호

- 법장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

###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 2004 부다피아 SUMMER CAMP

## 미국 하와이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문화체험

현대불교신문사는 창간10주년을 맞아 100년전 이민의 첫발을 내딛던 미국 하와이에서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역사, 문화 체험캠프를 개최합니다. 2004 부다피아 여름 캠프는 지상의 낙원이라 일컬어지는 미국 하와이에서 전문적인 어학교육과 함께 역사 및 문화체험으로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영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필요성을 깨닫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폴리네시아 및 미국 현지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넓은 세계를 배움으로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높은 안목을 갖춘 세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 참가대상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기간 : 7월 28일 ~ 8월 17일(20박 21일)
- 참가비 : 250만원(여권 · 비자수수료 별도) ● 정 원 : 선착순 50명
- 참가신청 : 3월 15일 ~ 5월 10일까지(※미국 비자신청은 별도문의 바람)
- 장소 : 하와이 무량사 한인문화원
- 주최 : 현대불교신문
- 주관 : 하와이 스탠포드대학교 부설 영어교육원
- 후원 : 조계종포교원 진각종통리원 (재)보덕학회
- 문의 : 현대불교신문 02)722-4162-3, 016-292-1987
- 참가비 입금통장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 준비물 : 여권, 미국 비자, 학생증, 필기도구, 카메라와 필름, 숙우 3~4벌, 셔츠와 바지 2~3벌, 모자와 선글라스, 수영복과 샌들, 비옷, 수건과 비누, 자외선 차단크림, 작은가방

※ 참가학생 부모님의 경우 하와이 사찰에서 공동생활을 전제로 참가가 가능합니다. 참가비는 관광비용 포함해 1주 180만원, 2주 200만원, 3주 220만원입니다.

□ 시정정시 종사소

- 참가비 최소화 - 하와이 무량사 숙식후원 가격저렴 체계, 항공요금과 교육비, 관광요금만 실비정산.
- 믿을 수 있는 기관 - 불교계 대표 언론사와 하와이 무량사가 보증.
- 원어인 교수진 - 하와이대학교 어학연수원 현직 교수와 강사로 구성. 소정의 자격과 국제경험 쌓은 원어인 강사 업선.
- 어학연수기관 사용 교재 - 미국 어학연수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재.
- 효과적인 회화교사 - 강의내용을 문화체험시 실제 상황에 적용해 유창한 영어를 구사.
- 단계별 수업 - Test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레벨에서 공부하도록 하여 실력을 빠르게 향상.

□ 프로그램 일정표

일정	시간	프로그램	일정	시간	프로그램
7월 28일(수)	오전 8시	영어학교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원어인 선생님과 영어전용)	8월 7일(토)	09시-12시	와이키키해변 수영, 휴식
7월 29일(목)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8일(일)	10시-12시	하와이 친구들과 대화, 휴식
7월 30일(금)	09시-16시	한인 이민의 뿌리인 시탕수수능장, 자연박물관 관람	8월 9일(월)	09시-16시	진주만 방문, 다이아몬드 헤드 등반
7월 31일(토)	10시-12시	와이키키해변 수영, 휴식	8월 10일(화)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1일(일)	10시-12시	하와이 친구들과 대화, 휴식	8월 11일(수)	09시-16시	하와이왕국 이올라나 궁전 탐방 및 퍼레이드 관람
8월 2일(월)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12일(목)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3일(화)	09시-16시	카일린다린호텔 돌고래쇼 및 코닥 홀리스 체험	8월 13일(금)	09시-16시	바다 물고기와 함께 하노우마베에서 수영
8월 4일(수)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14일(토)	09시-16시	영어학교 졸업식, 휴식
8월 5일(목)	09시-16시	하와이 폴리네시아민속춤 및 공연관람	8월 15일(일)	10시-12시	하와이 친구들과 대화
8월 6일(금)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16일(월)	09시-18시	화산의 신비를 눈앞에서 빅아일랜드 화산성 탐방
			8월 17일(화)	10시-	출발